

“해인사 주지 추천, 방장 스님 고유 권한”

방장 추대위, 24일 회동... “방장스님 뜻 따르겠다”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 추천은 방장 원각 스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칙이 다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각 스님이 대중들에게 맡겼던 주지 추천이 다시 방장 원각 스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제9대 해인총림 방장 원각스님 추대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스님들은 6월 24일 해인사 정화당에서 회의를 열고 2시간여에 걸쳐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대위에서 활동한 40여 명의 스님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대중의 뜻에 따라 차기 주지를 추천하겠다는 방장 스님의 뜻을 받

들기 위해 이뤄졌고 향후 스님과 여연 스님의 정견 발표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석 대중은 회의를 통해 차기 주지 후보를 추천하는 것보다 주지 추천권이 방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방장 원각 스님 뜻에 따르기로 의견을 함께했다. 이에 따라 해인사 차기 주지는 방장 원각 스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한편, 현재 해인사는 전임 주지 선해 스님이 사직해 헤일 스님(전 총무원 문화부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운영되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용주사, 現 주지 신상 놓고 갈등 격화

“사실혼 관계 확인” VS “명예훼손, 법적대응”

비대위 24일 기자회견 열고 ‘산문출송’ 추진 의사 밝혀 성월 스님 “모두 허위사실”

돈 선거 의혹이 불거졌던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가 현 주지 성월 스님의 신상과 관련해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용주사 종진 비상대책위원회(대표 대안, 이하 비대위)는 6월 24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월 스님의 허위 승적과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산문출송’을 실시할 것을 밝혔다. 또한 현 주지의 즉각 사퇴와 종단의 별빈 징계를 촉구하기도 했다.

에 대해서도 다시 문제를 삼았다. 비대위는 “성월 스님은 용주사에서 행차 생활을 하지 않았으며, 사미·비구계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허위 승적과 관련한 사안이 종단 법규위원회에 제소돼 있다. 오랜 기간 종단의 혼란기에 이룬 파렴치한 일이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중 대중공사를 통해 현 주지에 대해 ‘산문출송’을 실시할 것”이라며 “중진 대중이 결의한 ‘산문출송’을 문도 스님과 종단 스님들이 해방하고 정화의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성월 스님은 비대위의 이 같은 주장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성월 스님은 2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용주사 종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임의 단체가 무책임한 비방과 근거없는 사실을 유포하여 개인과 산중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스님은 “교구본사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산중총회 구성원들에게 급전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이는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실혼 의혹에 대해서도 “출가 수계한 이래로 범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처자에 관한 사항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로 인해 헐박을 당하여 수궁한 사실도 없다”면서 “이 사안은 지난 2004년 호법부에 진정이 된 동일한 사건으로, 당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성월 스님은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대중을 속이는 것은 명백한 범계행위이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행위”라면서 “비대위 선언문에 관여한 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입법·감시’ 알맹이 빠진 중앙총회

[해설] 조계종 중앙총회 제202회 임시회 평가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성문) 제201회 임시회가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원해 종헌 개정안·종법 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단축해 하루만인 오후 3시경 폐회했다. 하지만 종헌·종법 개정안을 다루기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였지만 정작 대부분의 종법 개정안들이 철회 이월되는 등 ‘알맹이’가 없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3전 4기’ 종헌 개정 이번엔?

이번 총회의 가장 중요한 사안은 원로의 원 자격에 맞춰 종정 자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총림 제도 개선, 각급 위원회 위원장을 중앙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 논의였다.

조계종 중앙총회는 무기명투표를 통해 66표 중 52표가 찬성해 아슬아슬하게 가결시켰다. 반대는 13명, 무효는 1표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엔 통과된 종헌 개정안에는 원로회의 권고의 핵심이라 할 △제3조에 ‘소의율은 사분율과 범망경으로 한다’를 추가 △제105조 3항의 방장 중임 금지 사항 재검토 △제128조의 단서조항인 ‘다만, 별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삭제 권고는 반영하지 않았다.

앞서 원로회의는 중앙총회가 통과시킨 종헌 개정안을 절차상 미비 등을 이유로 3차례 인준을 보류한 바 있다. 핵심 권고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종헌 개정안이 원로회

의 인준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월·철회... 법안 상정 왜 하나

이날 회의에서 종법 개정안으로는 총림법·원로회의법·해의교구특별법·직영사찰법·사찰문화재보존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올라왔지만 사찰문화재보존관리법 1개만 통과됐다.

나머지 법안들은 의견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2건 이월, 2건은 철회됐다. 특히 철회된 직영사찰법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인

종헌 개정안 통과, 인준 여부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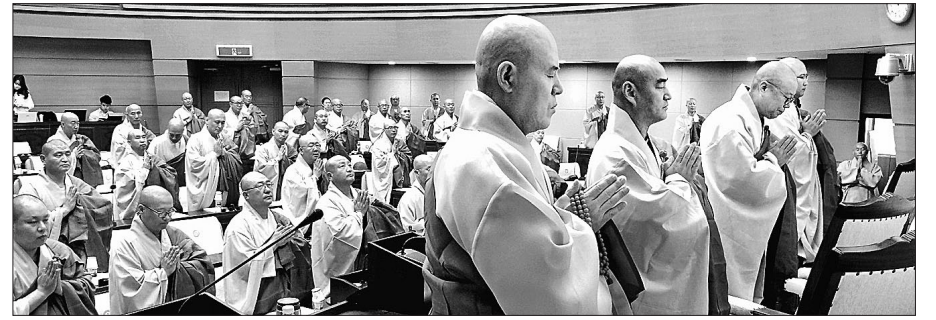
5개 종법 개정안 중 1개만 가결

줄줄이 이월·철회, 상정 절차 무색

‘무더기’ 정책질의하고 불참까지

사찰에서 “총무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찰 주지 임명 권한의 일부를 본사로 나누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당부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회의에서는 자승 스님 측 정책모임 불교광장 대표인 지홍 스님이 직영사찰법 개정안의 법안 취지를 설명하는 기획실장 일감 스님에게 “총회 개원 하루 전 관련 법안을 숙의해 3월에 다루자는 총무원장 스님의 의사가 있었다. 보고 못 받았는



조계종 중앙총회 제202차 임시회 개원 모습. 이날 총회는 종헌과 종법 개정을 위한 ‘원 포인트’ 총회였다. 하지만 5개 종법 개정안 중 4개가 이월·철회됐고, 종책질의는 서면으로 대체됐다.

가”라고 재근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총회위원 선광 스님은 “최소한 집행부가 제출하는 법안은 의견 수렴 미비를 이유로 본회의에서 철회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비판과 감시 기능은 어디로?

중앙총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비판·감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도리어 신상 발언을 통해 서로의 세력을 견제하는 데 비쳤다.

총회위원 진각 스님은 신상발언을 통해 영담·명진 스님이 행하는 종단 비판 행보에 대해 승가 위의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명진 스님도 지금 비판하지 않으면 과보가 부메랑처럼 돌아온다고 맞섰다. 신상발언 논란에 결국 총회는 비공개로 전환됐고, 종책질의는 서면으로 대체되면서 신속히 마무리됐다.

이 같은 회의 진행은 ‘원 사이드’ 형국의 중앙총회가 총무원에 대한 비판과 감시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단초다. 또한 삼화도량도 회장 영담 스님이 18개 종책질의 중 8개를 질의하고 서도 회의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종책질의를 비판과 감시가 아닌 정쟁(政爭)의 도구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

이번 총회에 대해 김종규 중앙총회NGO 모니터단 집행위원장은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하면 무작정 상정할 것이 아니라 더욱 숙의를 시켜야 한다”면서 “본인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없다”고 비판했다.

종책질의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서 중요하다 생각해 종책질의를 했으면 회의에 참석해 이를 집행부에 물어야 한다. 다수의 종책질의를 하고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번 임시회는 중앙총회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킨 회의였다”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의현 스님 감형 판결

개혁 정신 훼손인가, 화합의 조치인가

실천승가회 등 비판 목소리... 진제 스님은 환형 교시·시중

재심 법적 절차, 하자 있어 특별법 통한 사면 이뤄져야

1994년 조계종 개혁 당시 별빈 징계를 받았던 前 총무원장 의현 스님의 공권정지 3년 감형 판결을 놓고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이례적으로 2번에 걸쳐 재심호계원의 판결을 “화합을 위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는 교시와 시중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법적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비판의 표본은 조계종 前 교육원장 청화 스님이 열었다. 청화 스님은 6월 19일 오후 2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8일 이뤄진 제96차 재심호계원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재심호계위원으로서 심리 당일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돼 중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문을 연 청화 스님은 “재심호계원의 판결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의현 스님이 재심 청구 사유로 당시 초심호계원의 징계 결정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금이 아니라 당시 재심 청구를 요청했어야 한다. 행정 수반인 총무원장까지 지낸 분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심호계원이 의현 스님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천불교 전국승가회(상임대표 최희, 이하 실천승가회)는 6월 22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호계원의 판결을 “호계원 권한을 뛰어 넘어 종헌중립집서를 유린한 직권남용이자 재심제도를 악용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날 실천승가회는 징계자 사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절차와 과정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실천승가회는 “의현 스님의 사실상 복권이 필요했다면 적어도 중도들의 공의를 모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며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상생하는 종단의 모습을 보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불교 관련 재가·시민사회 단체들의 비판 성명 발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참여불교가연대(상임대표 허태곤)는 공권정지 3년 감형 판결이 “조계종을 94년 이전으로 원점회귀 시켰다”고 힐난했으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종헌 개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21년 전과 달리 눈초를 뒤집은 언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계종 종책모임 삼화도량은 6월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조계종이 발행하는 《불교신문》 1994년 6월 15일자로 게재된 기사를 상기시키면서 의현 스님이 당시 탈종 개종을 도모한 죄와, 처

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중계를 범한 죄가 추가돼 벌명됐다고 주장했다.

삼화도량은 “의현 스님은 처자가 확인되고 탈종을 기도한 승려였던 만큼 초심호계원의 별빈 징계를 반복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호계원의 참회문 발표와 재발방지 대책방안 발표, 불교신문 발행인 및 사장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종정 스님 등 종단 원로를 중심으로 이번 재심 판결이 화합을 위한 조치였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종정 진제 스님은 22일 발표한 시중을 통해 “종단 호계위원들이 전일합의로 내린 결정은 여명이 밝아오는 매우 뜻 깊은 일로 사료되어 치하한다”면서 지난 18일 재심호계원의 판결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에 앞서 진제 스님은 6월 발표로 명시된 교시를 통해 재심호계원의 화합적 판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성민·박아름 기자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흥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전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흥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1) 입종 구비서류



입 종



안 내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 방명합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